

# 配偶者選擇過程에 관한 史的 考察\*

A Historical Review of Mate Selection Process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金 惠 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조교 成 美 愛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Air & Correspondence Univ.

*Prof.* : Kim, Hye Seon.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Air & Correspondence Univ.

*Assistant* : Sung Mi-Ai

##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III. 결 론

참고문헌

## 〈 Abstract 〉

This study intended to review the historical mate selection process and to present wholesome mate selection process. For this purpose, reviewing the contents of secondary sources and novel literature.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rom this study:

Mate selection process was a kind of culture which was influenced by social atmosphere. And pre-17th century, most of the young people had social intercourse liberally. Therefore we must constitute wholesome mate selection culture through early socialization about heterosexual social intercourse.

\* 이 논문은 1991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I. 서론

### 1. 문제의 제기

인간은 결혼을 통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육구와 의무의 균형 속에서 각자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가면서 성숙된 인격체로 완성(유영주, 1984, 151)되며, 또한 사회구성원을 생산하고 사회화시켜 사회를 존속시킨다. 그러므로 결혼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사회에는 이혼하는 경우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그것도 결혼초기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청의 발표(한겨레신문, 1991, 10, 22)에 따르면 89년의 경우 이혼한 지 2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도 12.9%가 되는 등 결혼이 개인이나 사회에 가져다 주는 의미를 다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경향을 보인다.

특히 결혼한 지 5년 이내에 이혼하는 조기이혼의 경우가 전체 이혼의 1/3을 능가한다는 사실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배우자선택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즉 이러한 조기이혼의 경우 결혼실패는 실제 '교제기간 중의 실패'가 결혼 후에 명확해진 것(Bowman & Spanier, 1978, 72)으로 '서로'에 대해 그리고 '결혼생활'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결정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배우자선택과정은 결혼생활을 위한 基礎的이고 前提的인 훈련과정(Bowman, 1970, 101-104)으로 비록 결혼생활이 결혼전 교제기간 동안에 완전히 결정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기간 동안의 상호합의 정도가 이후 결혼적응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김양희, 1989; 김혜선, 1992; 김혜선, 신양재, 1988; 조규현, 1980; 홍준숙, 1987; Burgess & Cottrell, 1963; Nye & Berardo, 1973 등)을 볼 때 배우자선택 과정이 결혼관계의 발달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방을 파악하고 결혼생활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배우자선택

과정 문화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일제 식민지, 미군정 치하, 6.25동란이라는 참변과 전통적인 사회경제적 토대를 뒤바꿔게 한 1960년대의 공업화, 산업화라는 경제체제의 급변 속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남녀교제 양상과 남녀교제 윤리에 대해 고려해 볼 여유도 없이, 무력화 되어 버린 조선시대의 이성교제에 대한 시각(男女有別)이 경직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와중에 서구의 낭만적인 데이트 思潮가 무분별하게 도입되면서 '규제와 방종'이라는 극단적인 양상의 이성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배우자선택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양상은 물질을 최고시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배급사상과 맞물리면서 현실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상호 협의나 이해없이 물질적 조건을 최우선으로 배우자를 선택하여, 결국 결혼생활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파장에 이르는 경우가 되고 있다.

더욱이 결혼은 관념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는 場이 아니라 현실적인 생활의 場이기 때문에 경제생활, 자녀출산, 자녀양육과 같은 실제적인 문제가 수반될 수 있다. 그에 따라 새로운 역할에 대한 적응이 문제가 되므로(김혜선, 1992) 물질적 조건을 최우선시하여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이혼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결혼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올바른 배우자선택과정 문화의 정립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시급한 문제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두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배우자선택 과정은 두 사람간의 사적인 부분이지만 배우자선택의 궁극적 목적인 혼인이 사회내 한 제도이므로 배우자선택 과정도 사회질서 내지 사회규범의 일부로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현재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배우자선택 과정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원리와 이에 상응하는 윤리관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인식 하에서 배우자선택 과정을 살펴 보아야 하는데, 어느 사회에서나 전통적인 사회질서가 있어야 그 다음 단계의 새로운 윤리관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김철준, 1976, 181) 먼

저 우리나라 전통사회의 배우자선택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날 바람직한 배우자선택 문화를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을 통해 우리나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배우자선택과정 즉 남녀교제관 및 교제양상을 고찰한 것을 토대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전한 배우자선택 문화 및 남녀교제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오늘날 우리사회에 조기이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배우자선택과정 문화가 부재한 결과로 초래된 양상이라고 보고, 사적인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배우자선택과정의 양상 및 가치관을 파악하여 오늘날 문제시되는 배우자선택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배우자선택과정 문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전통사회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문헌들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배우자선택 과정의 양상 및 가치관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사회상은 政史보다는 野史나 평민들간에 회자되는 이야기 속에서 더 잘 파악되기 때문에 각 시대별로 대표되는 古典(삼국유사, 고려가요, 평민소설 등)을 선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古典을 분석함에 있어 본 연구자들의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1次史料를 분석하지 못하고 2次史料<sup>1)</sup>를 분석하는 제한점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역사적 연구에서 시대구분 문제는 길고 복잡한 인간 사회의 역사적 경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며 과학적인 역사인식의 핵심적 관건이 되는 것으로(한국역사연구회 편, 1989, 44), 현재 여러가지 시대구분 유형<sup>2)</sup>이 있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농업경제체제에서 왕조의 변화는 易姓革命의 당위를 인정받고자 사회 전반에 대한 변혁의 추진력을 가동시키는 혁명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서 王朝에 따른 시대구분을 선택하였는데, 통일신라시대 이전의 신석기 시대, 고조선·부여·삼한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를 통합하여 上古, 上代 또는 古代로 보는 최남선, 이병도, 진단학회의 견해를 따라 한 영역으로 묶어서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시대별 배우자선택과정을 파악하여, 오늘날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배우자선택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하고 건전한 배우자선택 문화를 제시하며, 궁극적으로 올바른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II. 본 론

### 1. 통일신라시대까지의 배우자선택과정 고찰

우리나라 고대사회의 초기는 지역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유목생활을 청산하고 농경생활로 정착하는 과도기적 취락상태(이규태, 1989:58)로, 혈연적인 유대에 의해 계속되어 자연발생적인 민주주의하에서 사회적인 공동생활을 영위(백남운, 박광순 역, 1990, 112)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무계급의 공동체 사회는 청동기의 사용으로 인한 생산력의 발전으로 무너지게 되었다. 즉 생산력의 발전으로 잉여생산물의 사적 소유가 가능하게 되면서 더 이상 무계급의 사회는 지속될 수 없었다. 그 결과 대규모 공동노동이 갖는 중요성은 감소되고 대신 더 작은 집단이 토지의 일정부분에 노동력을 고정적으로 집중투여할 수 있게 되면서 가부장적 세대공동체가 등장(한국역사연구회 편, 1989,

1) 역사적 연구에서 1次史料를 발견해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나 2次史料를 토대로 연구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차배근, 1981, 259)고 한 것을 보면 본 연구의 방법상의 제한도 어느 정도 용인되리라 생각한다.

2) 기존 학자들의 시대구분론은 크게 시간의 원근에 의한 시대구분, 사회발전을 기준으로 한 시대구분, 민족의 성장과정을 기준으로 한 시대구분, 주제별에 의한 시대구분, 사회발전과 王朝를 혼합한 시대구분, 지배세력의 변화에 따른 시대구분 등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68)하였다.

이러한 계급사회에서 등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古朝鮮의 당시 사회상을 잘 반영하는 犯禁八條를 살펴보면, 개별경영의 생산으로 노동력을 중시하며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신분적, 계급적 경계가 엄격한 사회(한국역사연구회 편, 1989, 78)임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사회경제적 발전은 삼국시대까지 계속 이어졌으며 3,4세기에는 체제가 정비된 고대국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이전 유목사회에 비하여 생산력은 향상되었으나 토지생산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 결과 유목생활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할 수는 없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고려시대에도 1년을 경작한 뒤에는 地力の 회복을 위해 1년 내지 2년을 그대로 묵혀야 하는 토지가 대부분이었음에 비추어 볼 때 당시의 농업기술도 休閒農法 단계에 있었음이 분명(한국역사연구회 편, 1989, 105)하며, 그 결과 유목문화에서 농경문화로의 완전한 질적변화는 어려웠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고대사회의 배우자선택 과정을 살펴보면, 당시의 배우자선택과정에는 유목생활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배우자선택 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남녀교제에 대한 의식 및 가치관은 그 변화 속도의 후진성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유목문화의 것과 유사한 자유스러운 男女離合의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시에는 혼인이 갖는 구속력이 크지 않았으며, 그 결과 성적인 방종은 제도나 모럴에 의해 큰 압제를 받지 않았다(이규태, 1989, 112)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자유로운 男女離合의 연애분위기는 '男女群聚歌舞'의 性的解放日(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6, 535)로 추정되는 제천행사와 신라의 탐들이 풍속 및 嘉俳 후의 祭儀에서 잘 나타난다. 즉 魏志東夷傳 및 後漢書에 따르면, 각 나라의 제천행사 때에는 남녀 불문하고 晝夜로 술과 가무를 즐기면서 남녀가 私通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라의 경우 초파일에서 보름까지 士女들이 절에 몰려와 殿塔을 돌면서 福을 비는 전답들이 있었는데 흥륜사에서 金現과 호랑이가 변한 미모의 처녀와의 私通(삼국유사)은 당시의

남녀간 교제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北史」 '고구려전' 중에 보이는 "高句麗 婚嫁 娶男女相悅即爲之" 라는 구절을 볼 때 서로간 사랑이 전제된 결혼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즉 고구려에서는 도시나 농촌을 막당하고 남녀가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서로 사랑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김정자, 1974, 76)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신화'에서도 잘 드러난다. 원래 신화란 전혀 황당무계한 공상이거나 마음대로 설명되어진 전설이 아니라 현실적인 생활의 산물(백남운, 박광순 역, 1990, 30에서 재인용)로서 풍속을 고정시키고 행위의 모범을 설정하고 어떤 제도에 위엄과 중요성을 부여하는 규범적인 힘을 가지는데(장덕순, 1978, 45에서 재인용) 선조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고구려 시조 신화에서 시조의父인 해모수가 母인 유화의 미모에 반해 私通했다는 사실을 거침없이 밝히는 것을 보면 자유로운 연애 및 혼전 성관계가 당시 사회의 도덕에 위배되지 않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통일 이후에도 지속되어 신라통일기를 전후해서 유학자로 이름을 떨친 強首도 일찌기 釜谷의 治家之女와 野合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이처럼 자유혼이 만연한 가운데에도 일부 지배층에서는 정략적인 목적으로 혼인을 추진한 경우가 보인다. 즉 남해왕은 석탈해가 지략가임을 알고 왕의 만공주를 시집보냈으며, 졸본부여의 왕은 주몽이 범상한 사람이 아님을 알고 둘째딸과 결혼시키는 등 일부다처제와 가부장제가 성장, 사회제도화되며 여성을 재산시하는 풍조 및 노예소유의 풍습이 성장(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6, 538)하는 과정에서 특권층에서는 정략적인 목적으로 배우자를 선택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배우자선택 유형은 일부 특권층에 한정된 것으로, 김유신의 부모가 되는 김서현공과 만명의 연애사건, 서동과 선화공주의 결혼, 김춘추와 문희의 만남, 바보 은달과 평강공주의 결혼 등을 보면 당시 신분적 지위가 높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도 '사랑'을 중시한 자유로운 배우자선택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서동요'의 경우 후세에 까지 널리 口傳되어 유포될 수 있었던 것도 당시의 자유로운 연애의 사회적 풍조 때문에 가능한 것(전규태, 1985, 237)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은 당시의 사회상을 잘 보여주는 삼국유사에 결혼조건 및 연애조건으로 첫눈에 반하는 신체적 매력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에서도 가능하다.

## 2. 고려시대의 배우자선택과정 고찰

고려시대는 관료에게 分給收組地를 수여하는 田柴料를 기본적인 토지제도로 할 정도로 생산력의 면에서 이전시대보다 발전(한국사연구회 편, 1990, 185)한 사회였으나, 施肥術이 발달하지 못한 관계로 地力の 회복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동안 경작지를 휴경 상태로 두어야 하는 휴경농법이 증가하기도 극복되지 못한 상태(한국역사연구회 편, 1989, 127)였다.

따라서 왕조의 교체에 따른 사회적 변화는 있었겠지만 농업이 주요 기간산업인 농경사회에서 사회의 획기적인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인 농업생산력에 있어 큰 발전은 없었기 때문에 그 변화의 폭은 이전시대와 완전히 상이한 사회상을 구현할 수 있을 정도라고는 보기 힘들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가지 입장이 대두되고 있는데, 변태섭, 이기동, 이기백 등의 학자들은 고려시대를 고대사회인 삼국시대의 고대적 체제를 개혁하고서 이루어진 사회라고 보고서 삼국시대와 구분하여 중세사회로 보고 있다. 그리고 강진철, 이우성 등의 학자들은 신라의 촌락, 田卷, 고려의 군현제, 상속제, 전시과 체계 등에 나타나는 공동체적 집단성 토지소유의 미발달 등을 들어 고려전기를 신라와 동질적인 고대사회로 보며(한국사연구회 편, 1990, 148) 武臣亂 이후의 사회변화를 전환의 기점으로 보고 있다. 즉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는 부분적으로는 다른 것

이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아니며, 현상적인 것은 다른 것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이우성, 1983, 167)고 보는 입장이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입장을 지지하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밝혔듯이 왕조의 교체가 가져다 주는 사회의 변화는 인정하지만, 이전시대와 완전히 별개일 정도로 변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는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대사회와의 연속성은 고려가요를 근간으로 하여 살펴본 고려시대의 배우자선택과정에서도 드러난다. 고려시대 사람들의 본연의 정서 및 서정을 한껏 발휘한 고려가요<sup>3)</sup>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남녀간의 연정을 꺼리낌없이 토로하며, 심지어는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묘사한 내용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추정해 볼 때 고려시대에는 남녀교제가 자유로우며 성적으로 자유분방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고려속요는 고려시대에 창작된 것이 아니라 고구려, 백제, 가야국의 민요가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박노순, 1990, 32)임을 감안하고 보면 남녀교제에 있어 이전 시대의 정서가 계속 연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高麗圖經 民庶條에 “고려의 서민들은 남녀의 婚娶에 경솔하게 함하고 부부가 쉽게 헤어지니 典禮의 法이 아니었다”라는 구절과 “남녀가 같은 溪流에서 목욕을 하더라”는 구절을 통해서 보면 內外가 엄격하지 않으며 남녀의 만남과 사귀이 자유로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래 신라말기 부터 유교가 수용되었으나 이는 윤리나 철학 등 기본적인 사상체계를 불교에 양보하고 漢字를 바탕으로 한 表記生活과 정치, 외교 등 현실적인 수단으로서의 학문(허홍식, 1990, 199)이었을 뿐이며, 또한 유교의 五禮 체계는 진골 중심의 골품체제가 해체된 다음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왕권을 보호하고 名分을 줄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질서개념(김철준, 1976, 51)이었으나 중앙정권이 이를 사회전

3) 고려속요라 일컬어 온 작품은 「樂學軌範」과 「樂章歌詞」에 전해오는 〈動動〉 〈井邑詞〉 〈處容歌〉 〈鄭瓜亭〉 〈鄭石歌〉 〈青山別曲〉 〈西京別曲〉 〈思母曲〉 〈雙花店〉 〈履霜曲〉 〈가시리〉 〈滿殿春〉 등의 12편이 있으며, 이 중 〈動動〉 〈雙花店〉 〈履霜曲〉 〈가시리〉 〈滿殿春〉 〈西京別曲〉 등 반수가 남녀간 연정과 이별을 노래한 것(최동원, 1987, 107)이다.

반을 통제하는 이념으로 추진할 정도로 강력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회이념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고려시대까지도 유교의 윤리가 사람들의 가치관을 지배하지 못하였으며 남녀교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전 시대와 변함없는 연애 분위기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시대이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일부 상류층에서는 정략적인 목적으로 혼인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표적으로 태조 왕건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취약한 왕권을 보완하고 지방호족을 회유하고자 신라의 王室女를 위시하여 27家の 딸을 맞아 29명의 后妃를 맞이하는 등 혼인을 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혼인을 통해 出世와 家格의 향상을 노리는 일부 세도가들에게 일반화(최숙향, 1984, 298) 되어 혼인을 신분상승의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무리도 나타나게 하였다.

이러한 고려 사회상은 武臣亂과 元의 압제 하에서 파행적으로 치닫게 되는데, 배우자선택과 관련되는 남녀교제관은 불안한 사회분위기 속에서의 가치혼란에 의해 더 자유분방해지며 性的 紊亂의 정도는 더 심화되었다. 특히 문란의 극에 달한 고려왕실이 이러한 분위기를 주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 및 도덕성의 붕괴로 인하여 결혼을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양상이 성행되었으며, 심지어는 妻를 유기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농업생산력은 꾸준히 증가되면서 사회변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는데, 고려 말기 즉 14세기 부터 이루어진 休閒農法의 극복은 이후의 조선시대가 고려시대와 다른 사회상을 구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즉 休閒農法이 극복되면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耕地 전면에 肥培를 가하여 連作常耕하는 집약농업이 가능하게 되었고, 강력한 중앙집권체제가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농업기술 개발은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의 경험적 처방에 의한 것이 물론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새

로운 기술의 도입 또는 강구에는 일정한 지식이 요청되므로 지식인의 역할을 결코 배제할 수 없는데(이태진, 1990, 34), 선진 강남농법<sup>4)</sup>을 수용하면서 등장한 新興士族들이 새로운 정치이념으로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신유학을 받아들이면서 고려사회와 상이한 사회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건설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에 따라 배우자선택과정도 성리학적이념하에 지배되는 맹아가 짝트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성리학적이념은 비약적인 생산력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중앙집권체제에 의해 모든 사회 계층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 3. 조선시대의 배우자선택과정 고찰

조선시대는 농업생산력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과 그러한 토대에서 구축된 성리학적 가치관에 따라 이전의 사회와는 상당히 상이한 사회구조 및 가치관을 가진 사회였다. 즉 고려말기 곧 14세기 때 부터 신진사대부들의 노력에 의해 連作常耕 및 移秧法이 가능한 선진 강남농법과 성리학이 들어오게 되면서 조선사회는 휴한농법을 극복하고 連作常耕하여 농업생산력에 있어 비약적인 발전을 맞이하였고, 이를 토대로 하여 불교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성리학을 사회이념 체계로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전환은 단순히 왕조의 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사상 등 모든 면에 걸쳐 커다란 변화(변태섭, 1991, 265)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농업기술은 자연조건상의 제약을 많이 받는 것이어서 그 도입과 활용에는 반드시 자연조건의 차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시켜야 한다(이태진, 1990, 76). 이런 연유로 조선왕조 개창 후 약 1 세기가 지날 무렵인 15세기 말엽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휴한을 극복하고 1년1작의 連作常耕을 실현하게 되었다. 15세기 세종대에 편찬된 농서인 <농사직설>을 보면, 水利上의 제약으로 移秧法의 일반화 단계에는 아직 이

4) 강남농법은 주로 수전농업에서 水利와 施肥의 기술에 일대 발전이 이루어져 휴경의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한편, 새로운 작법으로서 移秧法이 성립된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이태진, 1989, 194).

르지 못하였으나 그 耕程은 1년1작(이태진, 1990, 46)으로, 휴한농법을 극복하고 連作常耕하는 집약농업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농업생산력은 이전 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발전을 보았다.

이러한 15세기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토대로 해서 우리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중앙집권체제가 이루어졌으며(이태진, 1990, 38), 이 지배계급은 이전 사회와 상이한 이념체제인 성리학을 지배이념으로 강조하였다.

원래 어떠한 사상이 한 시대의 지배사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나름의 시대적, 사회적 조건이 구비(이태진, 1989, 125)되어야 한다.

당시 조선은 易姓革命으로 새로운 왕조를 주창하였기에 혁명의 타당함을 납득시킬 수 있는 이념체제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리학은 在地地主의 입장에서 기왕의 유학사상을 名分에 중점을 주고 체계화한 관념이었으므로 새로운 왕조의 요구에 잘 부합되는 사상체계였다. 이런 연유로 조선은 우주론, 인성론, 윤리론이 상호협합적인 구조로 짜여있는 보다 발전된 중세사상(한국역사연구회 편, 1989, 160)을 사변적인 측면보다는 국가 위주의 실용적,功利적인 측면을 중시하여 수용(한국역사연구회 편, 1989, 162)하였다.

그 결과 君臣, 父子, 夫婦, 主奴, 君子와 小人, 그리고 華夷 관계와 같은 중세사회의 현실적 인간 질서는 모두가 자신의 사회적 分, 즉 名分에 따라 上命下服의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한국사연구회 편, 1990, 280)는 사회윤리가 성립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리학적 사회질서는 이전 사회의 사상체계와는 완전히 판이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15세기) 농업생산력의 향상으로 성리학적 사회질서가 수용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되었지만 의식의 변화 속도가 갖는 후진성 때문에 이전 사회의 의식구조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국가에서는 성리학적 윤리를 보급하고자 <삼강행실도> 등 禮書를 간행 보급하였으나 일반 대중들의 의식구조에 까지 영향을 미치지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성리학이 우리사회에 뿌리를 내린 시기는

성리학이 수용되기 시작하여 2세기가 가까와지는 시점인 16세기이다(이태진, 1990, 81). 이 시기는 선진적인 강남농법이 완전히 실현되는 때(이태진, 1990, 84)로 사회전체의 富는 크게 증대되고 있었으나 그 획득과 분배의 방식에서는 서로 다른 두개의 입장이 대립하여 정치적으로 심한 파탄을 일으키던 시기였다. 즉 15세기 말엽 집약농업 안에서 새로운 농업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소농민도 시장에 널 잉여물을 가질 정도로 농업경제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농촌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場市가 본격적으로 발달하여 유통경제의 발달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 화폐제도에도 큰 변화가 생기는 등 농민층 분해를 비롯한 격심한 사회적 동요가 있었던 시기(이태진, 1990, 112)였다.

이 때 성리학은 진보적 입장에 의해 받아들여져 새로운 사회윤리 체계로서의 터전을 공고히 다져갔는데, 진보적 입장이 추구하는 것은 각 지방단위사회에 자치적 기능을 부여하면서 사회적, 정치적 비리의 배제가 곧 사회안정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란 인식 아래 유교적 도덕윤리의 함양을 통해 사회를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그 구체적인 노력은 15세기 말엽의 鄉村禮, 香飲酒禮 보급운동과 16세기 초반의 鄉約 보급운동으로 이루어졌으며(이태진, 1990, 86), 가족관계나 향촌사회의 윤리문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수신서인 <소학>을 성리학적 윤리 정립의 일환으로 간행, 보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리학도 16세기 말엽 兩亂(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으로 혼란을 경험(변태섭, 1991, 335)하면서 그 입지가 줄어들며, 17세기 후반 이후 상공업의 발달과 새로운 사회분위기 속에서 지주중심의 사회체계가 동요하였을 때는 지배사상으로의 사회적 권위가 흔들리게 된다(이태진, 1990, 144). 당시 농지개간과 개량농법의 보급에 따라 생산력이 급진전을 보이게 되었으며, 또한 후반에 들어서서는 兩亂에 의해 파괴된 수리시설이 완전히 복구, 증대되면서 移秧法이 보급(이태진, 1990, 22)되어 농업생산력이 향상되었다. 그 결과 상품, 화폐경제가 진전되고 수공업 및 광업의 발달(변태섭, 1991, 362)로 이루어지면서 농민층과 양반층 내에는

경제적 계층분화가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종래의 신분적 지배, 예속 관계와 士農工商의 職分的 社會構成 위에서 기능하고 있었던 성리학 일변도의 사상체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변태섭, 1991, 363).

그러나 지배층은 당시 변화되는 사회경제적 조건에 적합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서 무너져가는 신분계층의 권위를 성리학적 사회질서 속에서 유지하고자 문중조직을 강화하고 족보를 강조하며 제사의식 및 그 절차에 집착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사회문제를 해결할 때 규범으로 삼는 전통사회는 바로 이 시기로, 이 시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해결책을 가져다주기 보다는 하나의 사회지배 사상이 변화의 폭을 감당하지 못하고서 경직, 반동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지배층의 경직된 노력은 피지배층으로 하여금 반봉건 투쟁으로 나아가게 하였으며(한국역사연구회 편, 1989, 198), 이후 갑오개혁에 까지 이르게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조선사회의 주도세력인 신진사대부들은 구지배세력의 지배이념인 불교를 배격하고 새로운 지배이념으로 성리학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건국 초에는 성리학이 지배이념으로 정착할 사회경제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의식의 변화속도가 갖는 후진성 때문에 여전히 고려시대의 자유스러운 남녀교제 및 배우자선택 과정이 지속되고 있었다. 15세기 때 국가에서 성리학적 윤리를 보급하고자(삼강행실도) 등의 禮書를 간행 보급하였으나 일반생활인의 습속으로 정착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어 15세기 중반까지 상민층의 남녀관계는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유지되었고(이현희, 1982, 10) 단지 극히 일부의 상류층만이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16세기에 와서는 그동안 성장된 사회경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성리학적 윤리질서가 사립파들의 노력에 의해 사회의 지배질서로 대두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남녀간의 관계는 남녀유별, 남존여비 사상하에서 규정되었으며, 남녀는 본능과 규범에 대한 순리적인 대처가 아닌 인위적인 규범으로 엄격히 분리되어(김영수, 1989, 169-170) 이전 사회에서 행해지던 자유로운 교제가 사회적으로 제제를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관은 兩亂을 겪게 되면서 크게 붕괴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원래 전쟁이란 인간정신에 대한 강간(모라비아, 1982, 244)으로까지 묘사될 정도로 인간사회를 일시에 혼란시키기 때문에 이전의 가치관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게 만든다. 또한 당시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 속에서 농민들은 농업생산력을 이전보다 더 향상시켜서 경제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몰락한 양반과 부를 축적한 농민사이에는 더 이상 이전의 지배이데올로기가 제구실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당시에 나온 문학작품에서도 잘 드러난다. 원래 문학은 시대의 소산(김기동, 1974, 48)으로 그 당시 사람들의 인생을 표현하고 생활을 재현하는데, 영·정조 이전에는 영웅소설, 가정소설, 윤리소설, 전기소설 같은 작품들이 많았으나, 17세기 이후에 와서는 성리학적 윤리 규범에서 금기시 되어왔던 남녀간의 현실적인 애정문제를 추구한 작품이나 상류계급의 모순되기도 불합리한 생활을 풍자하거나 또는 부패상, 횡포성을 폭로한 작품(김기동, 1974, 59)이 많이 등장하였다. 대표적인 애정소설로는 <춘향전>을 들 수 있는데, 이 소설은 당시 사회의 계급구조가 갖는 가변성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실제로 계급구조가 변질하고 있다는 현상을 반영(이상택, 1990, 45)하고 있다.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임진록>에서도 지배계급에 대한 민중의 불신현상이 잘 드러나는데, 지배계급과 민중의 병리현상은 임란을 계기로 그 절정에 이른듯한 느낌(소재영, 1990, 273)이며, 이러한 상황은 이후 농지개간 및 이양법의 보급에 따른 농업생산력의 향상으로 인해 농민층이 성장하게 되면서 더 심화되었다. 즉 농민층은 전쟁 피해의 복구과정을 통해 농업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상공업을 발전시켜 상품경제체제로 이끌면서 성리학적 가정윤리를 변질시켰고 봉건 조선사회의 전통적 사회위선 척도를 財富指向의인 것으로 전환시켰다(조기준 외, 1991, 218).

그러나 지배층은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무너져가고 있는 사회질서를 더 강화하였으며, 이미 그 존재의의를 상실한 윤리관을 경직화, 반동화하면서 계속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富를 통해 지위를 획득한



상민층은 허위의식 속에서 계층상승의 표시로 과도하게 이전의 윤리를 내면화하면서 사회의 병폐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면적인 남녀교제 및 배우자선택과정에는 성리학적 윤리가 이전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여 남녀교제가 엄격히 규제되며 결혼당사자가 아닌 主婚者들이 나서서 결혼을 추진하는 양식으로 나타났으나, 내면적으로는 차츰 전통적인 가치관에 파문이 일어나고 있었으며(하현강, 1984, 306), 계층간 윤리관에 있어 遊離現狀은 더 뚜렷해졌다. 이러한 성리학 윤리의 병폐는 갑오개혁의 신분제 철폐, 조혼금지 조항을 통해 법률적으로는 일부 시정되었으나, 그러한 개혁이 실생활에 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었다.

#### 4. 일제시대 이후의 배우자선택과정 고찰

문호개방 이후 식민지화 이전까지 30여년간의 시기는 정치적으로 민족국가를 수립하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화를 지향하던 시기(강만길, 1984, 12)로, 이전 사회의 농업경제에서 벗어나 상품화폐경제체제 사회체제가 변화하는 시기였다.

그 결과 농경제체에 그 사상적 기반을 두었던 성리학은 양란 이후 부터 경직화, 교조화 되어가면서 더 이상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는데, 이러한 사상적 공백을 메꾸려는 노력으로 종교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이러한 종교운동의 결과로 서구의 인권주의 사상과 남녀평등사상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은 일제시대에 들어서면서 항일투쟁의 근본정신이 되면서 더 확산되는데, 당시 사회상을 잘 반영하는 소설, 잡지에는 신식교육, 여권신장, 계급타파, 자유의사에 의한 결혼 등 이전시대의 전통적 가족제도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당시 개화파의 부르조아 개혁사상을 계승한 독립협회가 대중계몽을 위해 발행한 <독립신문>에서는 여성을 억압하는 봉건적인 혼인제도의 개혁, 애정과 평등한 인격에 기반한 부부 중심의 근대적 가족제도, 여성의 교육권과 사회적 활

동의 필요성을 강조(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 편, 1992, 23)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설로 이전 시대와 다른 배우자선택과정을 주장하였다.

“결혼생활은 상호협조와 사랑에 기반해야 한다. 그러므로 배우자는 자유스러운 교제를 통하여 서로 인물과 성격을 잘 알게된 다음 정혼해야 한다. 남녀가 22-23세 되어 지각이 생긴 다음 중매를 통하지 않고 친히 배우자를 선택해야 한다(이효재, 1984, 48 에서 재인용).”

그리고 1920년대에는 사회전반에 걸쳐 계몽주의적 기운이 漲溢되었으며, 신교육을 받은 신여성들이 국내여학교나 외국 유학을 마치고 당시 사회에 하나의 집단층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신문과 『개벽』, 『신여성』 같은 잡지에 국내의 선진여성들의 결혼과 이혼, 자유연애, 남녀교제를 주제로한 진보적인 견해를 소개(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 편, 1992, 122)하였고, 부모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일환으로 배우자선택에 앞서 ‘맞선’을 보게 하였으며, “연애는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연애지상주의를 주창하여 당시 남녀교제에 상당한 여파를 미치기도 하였다(유희경, 1984, 264).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당시 식민지체제로 인해 왜곡될 수 밖에 없었다. 즉 일제는 식민지교육의 제 1보로 학교령(1906)을 제정하여 ‘모범교육’과 ‘실업교육’을 실시하였는데, 反日感情을 막기위하여 군신일체로서의 충효를 본으로 하는 유교적, 봉건적 가치관과 친황제 이데올로기를 중심원리로 하는 모범교육의 일환으로 가부장적 봉건도덕을 강조하는 修身과목을 중요시 하였으며(한국역사연구회 편, 1989, 285-286), 봉건적인 일본식의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통치에 도움이 되는 봉건적인 우리나라 구습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등 변화된 사회경제체제와 유리되는 봉건적 사회질서를 강요하였다.

그 결과 보수반동과 개혁이라는 극단적인 이증구조 속에서 연애지상주의를 표방하는 서구지향적인 일부 신여성들은 구습의 사슬에서 벗어나고자 극단적인 방종으로 치달았으며, 변화의 물결을 접해보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통적 윤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등 배우자선택과정에 있어 피리가 심화되면서 가치관 부재의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은 해방 후 미군정 치하에서 더 심각해진다. 미군정은 일본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식민지 통치기구가 남한의 효율적인 지배를 위해 매우 적합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과거 식민지 통치기구를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한국역사연구회 편, 1989, 357)하는 한편 사회적 토대가 완전히 상이한 서구식 자유연애 물결을 무제한적으로 이식시키면서 남녀교제는 방종에 가까운 양상과 이전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전형적인 봉건적 중매결혼이 공존하는 형태를 보이게 되었다. 즉 배우자선택과정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파악해가는 자유연애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두 유형이 공존하는 식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화, 금전만능주의만을 추구하는 오늘날까지 그 파행의 폭을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 Ⅲ. 결 론

오늘날 우리사회에 조기이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배우자선택과정 문화가 부재한 결과로 초래된 양상이라고 보고서, 본 연구는 사적인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배우자선택과정의 양상 및 가치관을 파악하며 오늘날 문제시되고 있는 배우자선택 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배우자선택 과정 문화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갖고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통일신라시대까지의 배우자선택과정 문화를 살펴보면, 통일신라시대까지는 농업의 등장으로 생산력이 전보다 크게 향상되며 가부장제가 정착될 수 있는 맹아를 보였으나, 토지생산성이 낮았기 때문에 이전의 유목문화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과도기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속도가 갖는 후진성으로 말미암아 남녀연애관은 여전히 유목문화에서처럼 자유스러웠다. 따

라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유로운 연애를 통해 배우자를 선택했으며 연애가 성관계로 까지 자유롭게 이어지는 예도 많이 보인다. 그리고 결혼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으며, 이러한 사랑은 신체적 외모를 통해 짝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특권층에서는 정략적인 목적으로 결혼을 추진한 경우도 보였다.

둘째 고려시대의 배우자선택과정 문화를 살펴보면, 고려시대의 경우 武臣亂 이전까지는 이전의 삼국시대와 본질적인 면에서 크게 변함없는 고대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武臣亂과 元의 압제 이후 야기된 가치관 및 도덕성의 붕괴로 인해 더 가중되며 그 정도가 훨씬 심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시대이고 정략적인 목적에서 혼인을 추진하는 기득권층은 있기 마련인데 고려의 경우 건국 초부터 왕실의 정략적 혼인이 파급효과를 주어 일부 지배계층에서는 出世와 家格의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혼인을 하거나, 심지어는 妻를 유기하면서 까지 再婚하는 물엿치한 경우도 있었다. 이후 고려말기 부터는 농업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을 토대로 새로이 등장한 성리학적 사회이념이 배우자선택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맹아를 보였다.

세째 조선시대의 배우자선택과정 문화를 살펴보면, 조선시대의 경우 고려말기부터 선진 강남농법과 성리학이 도입되면서 이전 사회와 상이한 사회이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의식의 변화 속도가 갖는 후진성 때문에 16세기 경에야 남녀유별에 입각한 성리학적 윤리질서가 사회의 지배질서로 대두될 수 있었고, 이전의 자유로운 남녀 교제는 사회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양란을 겪게 되면서 지배이데올로기 체제에 동요가 나타났으며, 또한 전쟁복구 과정에서 나타난 생산력의 향상으로 경제체제가 상품경제체제로 변화되면서 이전의 성리학적 가정윤리를 변질시켰다. 이러한 가운데 지배층은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이미 그 존재의의를 상실한 윤리관을 계속 강화시켰으며, 또한 富를 통해 지위를 획득한 상민층은 허위의식 속에서 계층상승의 표시로 더 과도하게 이전의 윤리를

내면화하면서 사회의 병폐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면적인 남녀교제 및 배우자선택 과정에는 성리학적 윤리가 이전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였으나, 내면적으로는 차츰 전통적인 가치관에 파문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윤리관에 있어 遊離現狀은 더 뚜렷해졌다.

마지막으로 일제시대 이후의 배우자선택과정 문화를 살펴보면, 이전 시대의 성리학이 더 이상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상적 공백을 메꾸려는 노력으로 종교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서구의 인권주의 사상과 남녀평등 사상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여성들이 자유연애, 남녀교제를 주제로 한 진보적인 견해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식민지 교육을 실시하는 일제에 의해 왜곡되었으며, 그 결과 보수반동과 개혁이라는 극단적인 이중구조 속에서 피리가 심화되어 가치관이 부재하는 양상을 보였고, 이후 미군정 치하에서는 과거 식민지 통치기구와 무제한적으로 이식되는 서구식 자유연애 물결이 부조화를 이룬 상태로 공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화, 금전만능주의만을 추구하는 오늘날까지 그 파행의 폭을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배우자선택과정도 하나의 문화로 사회상과 무관한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도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경우 남녀 자유로운 연애분위기가 만연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우리나라 전통적인 남녀교제 양상 및 가치관이 라고 인식해왔던 남녀유별 사상도 실제로는 17세기 이후 지배층이 무너져가고 있는 사회질서를 강화하며, 이에 맞추어 富를 획득한 서민층이 과사회화하여 내면화한 양상이라는 것을 알았다. 또한 그러한 경직된 양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애지상주의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 배우자선택과정은 극단적인 양상으로 치닫게 되었고, 여기에 물질만능주의가 가세되면서 顯示的인 조건만을 고려하여 배우자를 선택, 결국 조기이혼으로 이르는 경우가 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 사회적, 개인적 의미를 다하기 위

해서는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형성하여 배우자선택 과정이 결혼생활의 준비과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혼상을 제시하여 남녀가 올바른 가치관 속에서 의사결정하도록 하며, 개인적으로 어린시절에 이성간 교제가 자유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화시켜야 하는데, 가족을 제외한 조직 가운데에서는 학교 생활이 개인의 가치관 및 생활을 지배하므로 학교 교육이性に 따른 구분 말고 인격체로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잘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 【참고문헌】

- 1) 강만길, 1984, 「한국근대사」, 서울:창작과 비평사
- 2) 고팡림, 1990, 「한국의 혼인제도」, 서울:화성사
- 3)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6. 「한국민속대관」
- 4) 김기동, 1974, 「이조시대 소설론」, 서울:이우출판사
- 5) 김양희, 1989, 「가족관계학」, 서울:수학사
- 6) 김영수, 1989, 「조선초기 시가론 연구」, 서울:일지사
- 7) 김정자, 1974, 「한국결혼풍속사」, 서울:민속원
- 8) 김철준, 1976, 「한국고대사회연구」, 서울:지식산업사
- 9) 김혜선, 1992, “배우자선택 과정과 결혼적용도간의 관계”,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10) 김혜선, 신양재, 1988, “대학생의 결혼관 및 성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 논문집 제 5권:67-112
- 11) 모라비아, 이성훈 옮김, 1982, 「두 여인」, 서울:주우출판사
- 12) 박노순, 1990, 「고려가요의 연구」, 서울:새문사
- 13) 백남운, 박광순 역, 1990, 「조선사회경제사」, 서울:범우사
- 14) 변태섭, 1991, 「한국사통론」, 서울:삼영사
- 15) 소재영, 1990, “임진록 연구”, 국어국문학회 편, 「고전소설연구」, 서울:정음문화사

- 16) 유영주, 1984, 「신가족관계학」, 서울:교문사
- 17) 유희경, 1984, “한국여성복식의 연구”, 「한국여성사」, 서울:이대출판부
- 18) 이규태, 1989, 「민속한국사 I · II」, 서울:현음사
- 19) 이상택, 1990, “고전소설의 사회와 인간”, 「고전소설연구」, 서울:정음문화사
- 20) 이우성, 1983, 「한국의 역사상」, 서울:창작과 비평사
- 21) 이태진, 1989, 「한국사회사 연구」, 서울:지식산업사, 1990, 「조선유교사회사론」, 서울:지식산업사
- 22) 이현희, 1982, 「한국근대여성개화사」, 서울:이우출판사
- 23) 이효재, 1984, 「한국의 여성운동」, 서울:정우사
- 24) 장덕순, 1978, 「설화문학개설」, 서울:이우출판사
- 25) 전규태, 1985, 「한국신화와 원초의식」, 서울:반도출판사
- 26) 조규현, 1980, “우리나라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7) 조기준 외, 1991, 「조선후기사회경제사 연구입문」, 서울:민중문화사
- 28) 차배근, 1981, 「사회과학연구방법」, 서울:세영사
- 29) 최동원, 1987, “고려민요의 향유계층과 그 성격”, 「고려시대의 가요문학」 서울:새문사
- 30) 최숙향, 1984, 「한국여성사 I」, 서울:이대출판부
- 31) 하현강, 1984, 「한국여성사 II」, 서울:이대출판부
- 32) 한겨레 신문, 1991, 10. 22
- 33) 한국사연구회 편, 1990, 「한국사연구입문」, 서울:지식산업사
- 34)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 편, 1992, 「한국여성사」, 서울:도서출판 풀빛
- 35) 한국역사연구회 편, 1989, 「한국사강의」, 서울:한올아카데미
- 36) 허홍식, 1990, “유학과 과거”, 「한국사연구입문」, 서울:지식산업사
- 37) 홍준숙, 1987,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석사학위논문
- 38) Bowman, H., 1970, 「Marriage for Moderns」, NY: McGraw-Hill Book Co.
- 39) Bowman, H. & G. Spanier, 1978, 「Modern Marriage」, NY: McGraw-Hill Book Co.
- 40) Burgess, E. & L. Cottrell, 1963, 「Predicting Success of Failure in Marriage」,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 41) Nye, F. & F. Berardo, 1973, 「The Family」, NY: Macmillan Publishing Company